

주일연합예배

광고

* 예배의 부름

* 입례송 -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양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찬송 268장) /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봉헌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 하나님의 사랑이

* 말씀 - 두 번째 아담의 승리 <마태복음 4:11-17>

결단과 헌신 - 슬픈 마음 있는 자

축도

★ 주일예배 2부 순서가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1.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팀장임명- 교회 운영위원

당회 - 이정필, 김기섭

가정교회-김기섭, 예배-노익하, 재정-이재중/정지영, 관리-김대영, 중보-김철숙

선교구제-공원석, 교제-이혜진, 홍보-박지수, 교육-정기문, 새가족-남재훈

3. 가정교회 평신도세미나

* 일산 행복을여는교회, 4/28(금)~20(주일), 신청- 3/29(토) 9시

4. 2월 예수영접모임

강순미 김철숙 노영순 박수진 박진희 안현진 이양미 이혜영 정연호 허명호

5. 생명의삶 1기 * 7주차 : 그리스도(성자) & 성령 하나님

6. 수요중보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교우동정

* 결혼- 김준완(김기섭 정경란) 4/5(토) 11:00, 더세인트웨딩

■ 금주의 한 마디

- 가정교회 평신도세미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주일 설교 나눔

✔ 성경 - 마태복음 4:11-17

✔ 제목 - 두 번째 아담의 승리

▶ 마태복음 개요

■ 아담의 실패

■ 실패의 결과

■ 두 번째 아담의 성공

1. _____
2. _____
3. _____

▶ 한 주간 실천과 결단

죽어나가는 교회

2025.3.16 (11주)

THE 밝은빛교회

무슨 끔찍한 말이나 싶으실 것입니다. 『죽어 나자빠지는 교회』를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죽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 말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죄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성을 가진 채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본성이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반역죄’이며 ‘역모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죽으심을 무가치게 만드는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지만, 나는 살고 예수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예수는 살고 내가 죽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도 불리우는 신자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철저하게 죽음을 선택하고 죽기로 작정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신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기준일 때, 나의 계획이 앞설 때 혹은 나의 생각이 옳다 우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이 무시되는 듯 보이고, 내 계획이 외면당하는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못 견딥니다. 이 역시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없는데도 각자의 고집을 피운다면 참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참다운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며 말씀이 지시한 것이 목표가 되는 교회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교회입니다. **Bright**

보라 새 일을
행하시라니
이제 곧 나타내리니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라
옛적 일들을
생각치도 말라

보라 새 일을_이길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소요리문답20 _ 은혜언약

- 문 -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셨습니까?
 답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떠한 자들을 영생 얻게 하 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5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